

# 19만 조합원의 힘으로 승리하는 2023년 만들어 갑시다.



## 2022년 쉽 없이 달려온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부터 퍼진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세계 유행 시기에 재벌들은 오히려 부를 축적했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습니다.

2022년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더는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른 한해였습니다.

2022년 금속노조는 사상 최악의 반노동·친재벌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코로나 재난 시기에 노조 할 권리 쟁취, 산업전환기 노동자 일자리 유지·확대, 외투 자본 횡포에 맞선 구조조정 저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쉽 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국 사회 모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면화한 시기였습니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년 만에 사내하청노동자는 원청노동자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현대제철, 한국지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차게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단단계 하청구조의 모순을 사회에 낱알이 알려냈습니다.

한국 사회 공감과 정치권의 공감으로 노조법 2·3조 개정법안(손배폭탄방지법, 진짜사장책임법,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을 발의하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여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전면 결합했고,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 힘 있는 결집 이뤘으며, 12월 노조법 2·3조 개정 총력투쟁을 조직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지들 투쟁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열 정권과 한판 싸움, 총자본과 총노동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첫 행보는 경제 6단체장과 회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조리 없애겠다며 노동개약을 공언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연금, 교육 개약을 떠벌이며, 취업규칙 변경, 해고 사유 확대, 징의행위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 많이 일 시키고, 더 적게 임금 주고, 더 쉽게 해고하며,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노동개약을 선포했습니다. ‘재벌 천국 노동 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협박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정부 사주를 받은 교수들이 중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개약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권 상대 한판 싸움, 총노동과 총자본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 윤석열의 전면 노동탄압, 총단결 총투쟁으로 분쇄합시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만의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총공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죽이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해 건설노조에 억 단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신종 노동탄압, 민주노총을 3대 부패집단으로 규정하고 회계장부를 들여다본다며 민주노조 운동 자체를 괴멸하려 합니다. 다음 순서로 금속노조에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총단결 총투쟁으로 분쇄해야 합니다.

## 경제위기·친재벌·반노동·반민생, 투쟁으로 돌파합시다.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위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중의 삶을 외면하고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며 노동개약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친재벌·반노동·반민생, 노동자 총결기로 떨쳐냅시다.

## 2023년 조합원 동지들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세는 늘 어렵고 우리에게 난관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정세가 더욱 엄중하리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세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투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난관을 뚫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달려온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믿습니다. 한다면 한다는 금속노조의 전통을 믿습니다.

19만 조합원의 힘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2023년 함께 만듭시다. 함께하는 길 앞에 서서 위원장으로서 사력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